

한·중 카페리 여행자 휴대품 단계적 축소 재확인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위동항운 등 4개 한-중 국제여객선사에 공문을 발송, 다음달부터 여행자들의 휴대품 인정총량을 현행 70kg에서 60kg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공문에서 오는 10월부터는 다시 50kg으로 낮춘다는 종래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월 관세청이 농림부와 함께 시험을

약속한 '여행자 휴대품인정범위의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국제여객선 이용객들은 내달부터 총량 60kg내에서 농산물의 경우 품목당 5kg(자른 1kg), 한약재는 품목당 3kg(인삼은 300g, 녹용은 150g) 이하만 면세 휴대품으로 통관받을 수 있다.

세관은 또 일부 여행객들이

외국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들을 몰래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휴대품 총량 제한조치는 보따리상인들이 농산물과 한약재를 무분별하게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보따리상인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지만 당초 계획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 한약재 첨가한 민속주 청세주 개발

전남 강진에서 쌀을 원료로 한 토속 민속주 성격의 청세주가 개발돼 애주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에 있는 병영주조(대표 김건식)는 최근 순쌀로 빚어 여러가지 한약재료를 첨가한 청세주라는 약주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구기자와 진피, 계피, 백초, 인삼 등 7가지 한약재를 넣은 청세주는 찐쌀을 발효시킨 뒤 여과하는 방식의 여과주로 은은한 향기에 순하고 마신뒤 뒤끝도 개운해 주변 애주가들로부터 약주로서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60ml 한병당 가격은 1천 200원이며 알코올 도수는 13도다.

한의학 박물관 건립 추진 대구시, 2004년 완공 계획

대구시는 올해로서 343년의 역사를 간직한 약령시의 자료를 발굴, 한방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한의학 박물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5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4까지 210억 원을 들여 한의학박물관을 건립키로 하고 내년도에 설계비 3억5천만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했다.

시는 매년 5월초 개최하는 약령시축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약령시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는 중구 남성로 약령시 인근 5천여평의 부지에 1천여평 규모로 박물관을 건립키로 하고 내년부터 2003년까지 위치선정과 설계는 완료, 2004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구약령시는 조선 효종9년(1658년)부터 대구부성안의 객사 주변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한약재를 유통시켜 왔던 전통 한약시장으로 현재 3백 50여개 소의 한의원과 한약방, 약업사 등 한약관련업소가 밀집해 있다.

국립공원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조성 종합전시관 온실등 갖춰

경북 성주군은 국립공원 가야산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야생화 생태 식물원을 조성키로 했다.

성주군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3년까지 모두 65억원을 들여 가야산 등산로변 3만평을 야생화를 심는 한편 수류면 백운리에 야생화 종합전시관, 온실 등을 갖춘 야생화 생태 식물원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가야산 진입로 3km에 원추리 등 112종 5만 3,790포기의 야생화와 산수유 150그루, 철쭉 2만7,850그루 등을 심어 우리꽃 군락지를 조성한다.

성주군은 이 사업이 끝나면 가야산과 함께 야생화 생태 식물원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소식

금산 인삼축제 8월 25~9월9일까지

'금산 인삼축제'가 오는 8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10일간 금산 인삼종합전시장 및 인삼·약초거리에서 열린다.

금산 인삼선양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금산인삼축제는 인삼왕 콘테스트, 인삼요리 솜씨 자랑대회, 인삼생산경진 시연회 등 인삼 관련 행사뿐 아니라 금산지역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물떼기 농요, 농바우 끄시기 등 다양한 볼거리 행사도 펼쳐진다.

또 인삼캐기 체험, 인삼식품 만들기, 약초깎기 체험, 인삼깎기, 인삼 밭 짜기 등 가족단위로 참여해 즐길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참가자들을 위해 축제기간 동안 한방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소가 설치되며 국내 최고의 요리연구가들이 개발한 55가지의 인삼보양식을 맛볼 수 있는 코너도 운영된다.

전주 약령제전 10월 개최

제2회 전주 약령제전이 오는 10월 전주 경기전에서 열린다.

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는 18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약령시를 오는 10월5일부터 9일까지 경기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전주가 약령시의 본고장이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기간에는 약령제를 비롯 국악공연과 약초전시 및 판매가 이뤄지며 우석대 한방병원 한의사들의 무료 진료도 실시된다.

제전위원회는 지난해 약령제전을 치렀던 실내체육관이 개최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선 태종의 어진(임금의 초상화)을 모신 경기전으로 장소를 옮겼다.

전주는 조선시대 3대 약령시의 하나로 제주도와 전라도지역 약초 집산지였다.

열차관광 특수 약초 호황 순수국산약초 가공제품 인기

제천 약초시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열차관광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에 따르면 올해 청풍호반을 찾은 열차관광객 3천3백명이 제천 약초시장을 다녀갔으며 이들에게 2천4백여만원의 황기, 약초주머니 등 각종 약초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올들어 약초시장에는 지난 4월15일 부산에서 6백명이 다녀간 것을 비롯 4월25일 전남 장성군에서 6백명, 5월16일 경남 밀양에서 6백명 등 6차

레에 걸쳐 3천3백명이 열차관광을 이용했다.

또한 이들이 구입해간 약초는 한번에 4백여만원 정도로 6차레에 걸쳐 2천여만원의 약초를 시간 것으로 집계.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품목은 약초향기주머니, 황기, 십전대보탕, 총명탕, 황기백숙재료 등 제천에서 생산된 순수 국산약초를 지역에서 가공한 제품들이다.

상품성 낮은 더덕 튀김용 판매 인기

길이 5cm 가량의 작고 가는 더덕이 '튀김용 더덕'으로 탈바꿈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충남 논산시 동부농협연산분소 지역의 12농가로 구성된 논산더덕연구회는 지난해 1월부터 하나로클럽 창동점과 양재점에 상품성이 떨어져 약재상 등으로 수요처가 한정되던 작은 더덕을 '튀김용 더덕'으로 선별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튀김용 더덕은 100g당 450원으로 가격이 일반 더덕의 3분의 1에 불과해 하나로클럽 창동점에서 전체 더덕 판매액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9월1일 '한의학박람회' 열린다

탈춤마당에서 허준을 관람하며 한의학 강연을 듣는 지리가 마련된다.

경희대와 중앙일보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한의학의 과학화, 대중화, 세계화'를 주제로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제2회 한의학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일반인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탈춤마당 허준과 국악을 동원한 한의학 연극 등 각종 이벤트를 결별일 예정. 전광렬, 황수정씨 등 드라마 허준의 출연진이 행사장에 나와 사인회도 벌인다.

동아일렉콤 등 50여개 업체가 협찬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을 비롯해 일

본, 대만 등 동남아 국가 50여개업체의 동양의학관련 제품들도 일반인들에게 전시된다. 동서한방병원 이상동 원장이 중풍질환에 대해 강연하는 등 30여개의 한의학 전문가들이 강연과 함께 박람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도 해준다.

경희대 한방병원 신현대 박사는 "이번 박람회는 21세기 대체의학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방관련 제품의 전시회를 통해 한방의 산업화를 앞당길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문의:751-9619,박람회조직위원회)